

# 19세기 프랑스 성당 건축의 다색채 장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rchitectural Polychromy applied to the 19th century Church Architecture in France

강상훈\* / Kang, Sanghoon

### Abstract

In the 19th century, a series of study by Hittorff, Semper, Ruskin, and others on architectural polychromy in various perspectives appeared. This presumed that the architectural polychromy could become an essential part of architectural composition and contribute to create new architectural style, if not, at least new architectural and cultural context of the 19th century, the period when it is considered that the stylistic evolution in architecture is absent.

In the course of the stylistic development of church architecture of the 19th century in France, the architectural polychromy, grounded in a theory of representation, played a critical role as one of the main sources to create new architectural vision. The church architecture during the Second Empire in France was particularly susceptible to be influenced by this inevitable phenomenon, which signified an epistemological mutation in architectural perception beyond optical and perspective effect in the history of architecture.

Here the study attempts to recognize the aesthetic value of the architectural polychromy in the 19th century, and investigate its application, as not just an aspect of architectural embellishment but an indispensable portion of architectural vocabulary, on the church architecture in France throughout the 19th century, then to define its role in creating new architectural environment.

키워드 : 다색채 장식, 성당건축, 프랑스 건축, 19세기, 제2제정

Keywords : Polychromy, Church architecture, French architecture, 19th century, The Second Empire

##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성당 건축은 어느 특정 시대, 사회의 정신문화를 대표하는 개체로서 건축, 예술 역사의 서두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건축 타입이다. 그래서, 한 시대를 대표하는 독창적인 성당 건축의 존재여부는 건축이론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19세기 프랑스 성당 건축은 그 시대는 물론이고 현대의 많은 건축이론가들에게도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비판의 대상이었다. 첫째, 19세기에 지어진 프랑스의 성당 건축은 과거 수세기 동안 정해진 틀 속에서 정형화되어왔던 성당 건축 타입의 스타일들이 그대로 모방, 답습되어 흔히 '절충'이라는 단어로 대표될 수밖에 없고, 둘째, 19세기 초 콩코다(Concordat) 이후 종교, 사회적 변화로 성당 건축 신축이 대량 요구되면서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다보니 뚜렷한 특징을 지닌 수준 높은 프랑스의 성당 건축이 창조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그 비

용으로 지어질 수밖에 없다보니 뚜렷한 특징을 지닌 수준 높은 프랑스의 성당 건축이 창조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반면 그 시대의 성당 건축은 다양한 건축 사조의 실험 대상이었고, 또한 성당 건축 스타일에 대한 수많은 논쟁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19세기 프랑스 성당 건축에서 독창적인 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주장 논리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19세기 중반 예술 아카데미의 총 책임자였던 드지레 라울 로셰트(Desiré Raoul-Rochette)와 고딕 건축의 대표적 옹호자인 비올레 르 뒤크(E. E. Viollet-le-Duc) 사이에 펼쳐진 시대에 적합한 성당 건축 스타일에 대한 논쟁<sup>1)</sup>은 19세기에 신축된 수많은 프랑스의 성당 건축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한다.

19세기 건축, 예술사학자 브뤼노 푸카(Bruno Foucart)는 19세기 성당 건축의 정체성 결여에 대한 역사가들의 다소 일방적인 비판에 대해서 역설적인 의견을 제시했다<sup>2)</sup>. 그 시대에 신축

\* 정회원,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전임강사

1) RAUL-ROCHETTE, Desiré; VIOLLET-LE-DUC, E. E. : "Considérations sur la question de savoir s'il est convenable, au XIXe siècle, de bâtir des églises en style gothique", Annales archéologiques, t. 4, 1846, pp.325-353

된 다양한 건축 스타일을 갖춘 성당 건축들의 수적 팽창은 전례 없던 현상이며, 또한 개개인 건축가의 야망을 엿볼 수 있는 수작들이 존재하지만 단지 시각적으로 독창적 외형과 그 의미가 드러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 시각이 전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각각의 성당 특성을 세분화시켜 분석하는 것은 수많은 성당 건축들을 재평가, 재인식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고 이것을 거쳐서 19세기 성당 건축은 새롭게 평가될 것이라고 역설했으며, 현대의 건축이론가들은 이 점에 주목하여 19세기 성당 건축 특성을 몇 가지 관점으로 분류, 연구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세기 초 콩코다(Concordat)로 인한 종교, 사회적 변화가 야기한 성당 건축 진화의 결과로 인식되는 대주교 성당(cathedral) 건축 타입(type)의 발명과 바실리카(basilica) 타입에 대한 재해석<sup>3)</sup>, 공간이 예술적인 인식 개념으로 간주되기 시작한 19세기 후반의 현상을 예고하는 아카데미와 고딕주의자들의 차별적 공간적 개념, 그리고 성당 건축의 다색채 장식<sup>4)</sup>과 시각적 효과 등 19세기 성당 건축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이 중에서 건축의 다색채 장식의 체계화는 19세기에 고고학 연구의 발전과 함께 등장한 중요한 건축이론으로 프랑스 전역에 신축된 성당 건축 형성에서 크고 작은 자취를 남기게 된다. 비록 이것이 새로운 건축 스타일을 창조해낸 것으로 이해되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적어도 다색채 장식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시작된 19세기 건축의 전반적인 진화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건축의 다색채 장식의 이론 체계 확립의 핵심 인물 중의 한 사람인 자크 이그나스 히토프(Jacques-Ignace Hittorff)가 19세기에 파리에 신축한 생뱅상 드 폴(Saint-Vincent de Paul) 성당 내, 외부에 제안한 다색채 장식은 새로운 성당 건축의 이미지를 창조하기엔 피상적인 단계에 머물렀으나, 19세기 중반 이후 프랑스 전역에 신축된 성당 건축의 다색채 장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건축의 다색채 장식은 단순 장식을 벗어나 특정 지역의 고유성이 담긴 성당, 예를 들어 프랑스 남부 스타일 성당 건축, 파리지방(*parisienne*) 성당 건축의 결정적인 기능적, 인식론적 이미지 만들기에 공헌하기도 했다.

이 논문의 목적은 건축의 다색채 장식의 체계화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알아보고, 전반적인 성당 건축의 진화와 건축의 다색채 장식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고찰해보는 것이다. 우선 절충 스타일로 정의 내려지는 19세기 프랑스 성당 건축의 특성과 다색채 장식, 다양한 스타일의 건축 전시장으로 평가받는 프랑스 제2제정 때 신축된 파리의 성당 건축에 적용된 건축의 다색채 장식이 19세기 성당 건축의 진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또 그것의 궁극적인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밝혀볼 것이다. 그리고, 건축의 다색채 장식이 19세기의 새로운 건축 스타일 혹은 적어도 새로운 건축 비전을 창조해낼 수 있는 근거와 그것의 필연성이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보는 것이다. 마지막

으로 18세기 중반 이후 수플로(Soufflot), 볼레(Boullée) 등의 독창적 건축 개념의 전통이 다색채 장식과 어떻게 연계되어 이해되는지 알아볼 것이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19세기 건축의 다색채 장식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색채 장식의 체계를 세우고 전파했던 히토프(Hittorff), 잠페(Semper), 러스킨(Ruskin), 존스(Jones) 등과 같은 주요 인물들의 이론에 대한 간략한 서술을 할 것이며, 특히 19세기 프랑스 건축과 다색채 장식과의 관계 설정에 구체적인 역할을 한 프로스페 메리메(Prosper Mérimée)의 관점을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 건축 예술 교육개혁(1863)과 건축의 다색채 장식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것이 19세기에 이루어진 건축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인식이 되었는지 연구할 것이다.

3장에서는 19세기 프랑스 성당 건축의 특성과 다색채 장식, 종교 회화 재활성운동(1800-1860)의 의미를 이해하고, 4장에서는 성당 건축 신축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프랑스 제2제정(1852-1870) 때 파리에 신축된 성당 건축과 건축의 다색채 장식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한다. 그리고, 건축의 다색채 장식이 19세기의 새로운 건축 스타일 혹은 건축의 표현에 어떠한 효과, 영향을 가져왔는지 살펴보고 건축의 다색채 장식의 개념과 그 의미를 종합하고, 결론을 맺을 것이다.

## 2. 19세기 다색채 장식 체계의 이론적 배경

### 2.1. 다색채 장식론 체계의 진화 고찰

프랑스 건축에서 다색채 장식이란 표현은 까트르메 드 캥시(Quatremère de Quincy)에 의해 19세기 초에 처음 언급<sup>5)</sup>되었다. 우선 다색채 장식은 근본적으로 건축의 개성, 고유성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건축 내, 외부에 다양한 재료로써 표현되는 것이라 규정했고, 회화를 건축물의 이용자에게 조각 장식보다 더 많은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기법으로 보았다. 이것은 19세기 전반에 걸쳐 건축 실내에서 회화가 중요한 건축 장식 역할을 하고 건축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핵심 방법이 된 계기였다. 또

2)FOUCART, Bruno : "Comment peut-on aimer une église du XIXe siècle ou de la réhabilitation du pastiche" in *Monuments historiques*, No. 3, 1974, pp.64-71

3)대표적 저서로는 LENIAUD, Jean-Michel : *Les Cathédrales au XIXe siècle*, Paris, Economica, 1993

4)대표적으로 VAN ZANTEN, David : "Architectural polychromy : life in architecture" in MIDDLETON, Robin ed. : *The Beaux-Arts and nineteenth-century French architecture*, The MIT Press, Cambridge, 1982

5)QUATREMERE DE QUINCY, A. C. : "Caractère" in *Encyclopédie méthodique: Architecture*, vol. 1, Paris, 1788-1825, pp.513-515

한, 회화의 적용은 시대적인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았는데, 즉, 회화를 과도한 조형적 요소들을 사용한 실내 장식 등을 배제하면서 비용 절감의 효과와 함께 건축의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파악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회화는 19세기 프랑스, 유럽의 사회적 변화가 요구한 경제적, 효율적 건축 실내 장식에 가장 적절한 다색채 장식론으로 부각되었다. 반면 건축 외부에 설치된 조각 장식에는 단순 색채 장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단정을 지으면서 다색채 장식이 건축의 형태 구조에 종속되는 것이라는 제한을 두었다.

19세기에 불기 시작한 고대 그리스, 로마에 대한 조사, 연구의 열풍은 이 다색채 장식이 새로운 시대의 건축 표현에 적합한 것임을 재확인시켜주었다. 특히 1830년대 프랑스에서 히토프가 발표한 다색채 장식에 관한 이론 체계는 19세기의 새로운 건축을 추구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었다. 고대 그리스 건축과 다색채 장식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히토프의 논리는 다색채 장식이 건축의 형태로부터 분리되고 건축을 형성하는 구성체계의 일부라는 새로운 관점이었으며 19세기 건축계에 다양한 반향을 일으켰다<sup>7)</sup>.

그의 뒤를 이어 독일의 고트프리트 잠페(Gottfried Semper)<sup>8)</sup>와 영국의 존 러스킨(John Ruskin) 그리고 오웬 존스(Owen Jones)에 이르기까지 각각 고대 건축의 다색채 장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히토프와는 차별적으로 다색채 장식의 본질적 문제를 인식하여 기능적, 형태학적 관점에서 독자적인 다색채 장식론을 제기했다. 특히 유기체의 형태학적 관점<sup>9)</sup>에 바탕을 둔 러스킨의 다색채 장식의 네 가지 분류 체계<sup>10)</sup>는 구축적 다색채 장식(constructional polychromy)이 적극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었다. 잠페와 러스킨의 논리에서 공통점은 결국 건축의 구성은 구조체와 다색채 장식이 결합된 것이며, 구조체를 본질적, 다색채 장식을 부수적인 건축의 요소로 파악을 하지만 다색채 장식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것은 19세기 중반 이후 자연색채를 띤 철골구조물이 건축 구성에 도입되면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는데, 영국의 오웬 존스(Owen Jones)는 다색채 장식을 건축의 구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하고 구조적 다색채 장식(structural polychromy)을 체계화시켰다<sup>11)</sup>. 1850년 전후에 나타난 다양한 논쟁들은 프랑스에서 재정리되어 19세기 중반 이후 프랑스 건축에서 다색채 장식이 새로운 기술과 재료의 적용에 적절한 분야로 발전하기 시작했고, 특히 제2제정(1852-1870)때의 파리의 오페라 극장, 씨커스 극장 등 여러 건축 타입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촉진제가 되었다.

<표 1> 19세기 다색채 장식론 체계 분류와 특성

| 다색채 장식론 특성 |   |
|------------|---|
| 히토프        | -건축의 형태로부터 분리되고 건축을 형성하는 구성체계의 일부   |
| 잠페         | -사회성을 지닌 상징적 형태 언어<br>-노출된 건축의 구조체에 구체적인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장식이 행해졌을 때 그 장식은 자립적인 정체성을 갖게 됨  |
| 러스킨        | -유기체의 형태학적 관점에 바탕 : 색채와 형태는 별개<br>-자연은 색채와 형태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근본이며, 건축과 색채와의 상호관계는 자연을 관찰, 인식하고 그 현상을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br>-다양한 자연색채를 지닌 건축 원재료를 직접 적용하는 기법인 구축적 다색채 장식(constructional polychromy)은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장식으로서 건축가의 취향에 맞게 건축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 |
| 오웬         | -건축의 구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방법<br>-구조적 다색채 장식(structural polychromy)을 체계화  |

## 2.2. 프랑스 건축의 다색채 장식론에 대한 관점

### (1) 프로스퍼 메리메(Prosper Mérimée)

1834년에 건축유적관리 감독관 (Inspecteur des Monuments Historiques)으로 임명되어 19세기 프랑스 건축 문화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프로스퍼 메리메(Prosper Mérimée)는 건축의 다색채 장식의 새로운 이론들을 프랑스 건축의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았다. 히토프, 잠페, 러스킨 등의 다색채 장식 이론과 과거의 건축에 적용되었던 다색채 장식의 장단점들을 분석한 메리메는 다양한 분야의 장식 방법과 자신의 관점을 주요 건축전문지에 제시하면서 프랑스 건축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데 노력했다<sup>12)</sup>.

특히 19세기에 가장 적합한 건축의 다색채 장식의 한 방법으로 건축물 실내 벽면에 표현되는 회화를 지목했는데, 회화의 적합성에 대한 그의 논리는 까트르메 드 캥시의 관점이 재차 확인된 것으로서 건축의 다색채 장식이 새 시대가 요구하는 필연

6) VAN ZANTEN, David : "Architectural polychromy : life in architecture" in MIDDLETON, Robin ed. : The Beau-Arts and nineteenth-century French architecture, The MIT Press, Cambridge, 1982 ; Quatremère de Quincy의 관점은 H. Labrousse에 의해서 재확인 되는데, Labrousse는 다색채 장식은 구조체를 다른 부분과 구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형태구성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했다.

7) Ibid., p.207 ; 그리스 건축에 적용된 다색채 조각과 회화는 구조벽면과 잘 조화되고 선명한 색채와 지중해의 환경을 서로 잘 어울리며, 또한 다색채 장식은 건축의 형태를 강조하며 건축의 고유성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한다고 주장했다.

8) 체계적 연구 저서: 조영배·윤도근 : 19세기 새로운 장식관의 형성에 관한 연구-켄퍼의 피복론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 학회 논문, No.16, 1998-09 ; 신태양 : 19세기 건축이론에 있어서의 다채장식론, 대한건축학회논문, 15권 2호, 1999-02 ; SEMPER, Gottfried : The four elements of architecture and other writings ; Harry Francis Mallgrave, Wolfgang Herrmann 번역 ;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9

9) RUSKIN, John : Les Sept Lampes de l'Architecture, Paris, 1849, pp.142-149

10) RUSKIN, John : Ibid., p.149

11) VAN ZANTEN, David : Ibid., pp.211-215

12) MERIMEE, Prosper : "De la peinture murale et de son emploi dans l'architecture moderne" in Revue Générale de l'Architecture et des Travaux Publics, vol. IX, 1851, pp.258-275 / pp.327-337 ; Mérimée는 건축의 다색채 장식을 6가지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적인 것이라는 사실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회화 장식의 장점은, 첫째, 비용 면에서 조각보다 월등히 절약되고, 둘째, 빠르게 진화되는 사회상 모습에 더 적절한 방법이며, 셋째, 조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질되기 쉬운 반면, 더 빨리 수정, 보완도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앙시앵 레짐(ancien régime)<sup>13</sup>과 결별되면서 다양한 '차이'가 미덕이 되기 시작한 프랑스 제2제정 시기에 더 빠른 외형적 변화<sup>14</sup>를 즐기고 싶어 했던 부르주아 계층에게 설득력이 있는 건축 다색채 장식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단기간에 많은 성당 건축의 신축이 요구된 시대에 이 회화 장식은 이상적 대처방안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 체험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메리메는 확신한 것이다. 아울러 다색채의 사용은 건축의 견고함과 내구성을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화 장식이 이성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건축과 재료와의 상호 일치관계 원리와 상반되는 건축개념이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다. 러스킨이 제시한 건축의 다색채 장식의 네 가지 분류 체계<sup>15</sup>와 같은 맥락으로 다색채 장식이 적용되어야 할 건축의 부위를 '핵심적'과 '부수적' 부위, 크게 두 가지로 분류, 설명한 것은 바로 이 논리의 합리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고딕 건축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첨두형 아치를 떠받드는 기둥 구조체는 당연히 시각적으로 더 부각되어야 할 건축의 핵심 부위이며, 거기에 강렬한 색깔이 입혀졌을 때 그 구조체의 아름다움과 구축의 풍요로움은 더 드러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건축물의 이용자들은 고딕 건축의 고유성과 그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sup>16</sup>. 다만 메리메가 내세운 주장은 히토프, 잠페, 러스킨, 오웬의 이론을 실용화시켜야 하는 필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건축의 외형과 다색채 장식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관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아니었다.

## (2) 다색채 장식의 실용성에 대한 관점

메리메의 이론은 19세기에 건축 이론을 실무와 연계시키는 역할을 한 *Revue*<sup>17</sup>지의 편집자, 세자르 달리(César Daly)와 프랑스 제2제정 때의 핵심 건축가 샤를르 가르니에(Charles Garnier)에 의해서 재정리되고 실용화되었다.

세자르 달리는 건축 외부 벽면에 유기적 재료를 적용한 구축적 다색채 장식(constructional polychromy)의 실용성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메리메의 관점의 한계를 비판했다. 메리메가 적극 권장한 회화 장식은 프랑스의 기후에 맞지 않는 기술적 결함을 가진 다색채 장식이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 바로 유기적 재료를 적용한 구축적 다색채 장식이라는 것이다. 구축적 다색채 장식의 시각적, 미학적 효과는 이미 1612년 루이 13세(Louis XIII)때 파리의 보쥬 광장(Place des Vosges)에 면한 건축 외벽 재료로 사용된 붉은 벽돌과 아이보리 색 돌의 대조적 조화에서 증명되었으며, 이 방법은 19세기의 새로운 건축에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

다<sup>18</sup>. 또한, 샤를르 가르니에의 파리 오페라 극장 외부 표면에 사용된 분홍빛 대리석과 화려한 금도금 장식은 19세기 부르주아 사회의 건축 특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가르니에가 새로운 건축 이미지 창조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히토프의 다색채 장식 이론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 인식된다<sup>19</sup>. 가르니에의 다색채 장식의 적용은 단순한 이미지 창조를 떠나서 건축의 내, 외부 형태를 부각시키고 사람들에게 심리적, 심미적 자극을 줄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었는데, 교도소 건축의 외벽 색채를 극장 건축의 외벽 색채보다 더 어둡게 하는 것, 등이 바로 가르니에가 이해한 다색채 장식의 진의이자 원리였던 것이다<sup>20</sup>.

## 2.3. 19세기 건축가와 화가의 역할과 다색채 장식으로서의 회화

19세기 초부터 건축계에서 새삼스러운 논쟁의 주제로 떠오른 것은 회화 적용의 활성화가 야기한 건축가와 화가의 역할, 그리고 두 분야의 교류관계였다. “건축가는 모든 예술 분야를 다 이해, 통솔하고 건축의 구성에 직접 적용해야 한다”<sup>21</sup>는 통속적 관념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회화의 주제, 성격 등이 건축물의 고유성, 공간, 색채, 등 모든 면들과 적절히 조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은 건축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었고, 천재 화가의 작품이라는 이유로 건축 장식에 무조건 적용시켜야 할지의 여부도 건축가의 몫이었다. 두 분야의 교류는 더없이 중요해졌는데, 비올레 르 뒤은 이 두 분야의 예술인들을 종속관계가 아닌 각각의 독립적 존재로 인식하면서 서로간의 밀접하고 동등한 관계 설정만이 19세기의 독창적 건축 창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확신하였다. 1863년 건축과 예술 창작에서 독창성 개념의 접목을 지표로 삼은 프랑스 예술 교육 개혁<sup>22</sup>의 한 단계로 그 자신이 제안한 새로운 예

13)프랑스 혁명(1789)이전 구체제통칭

14)MERIMEE, Prosper : Ibid., p.261

15)RUSKIN, John : Ibid., p.149

16)MERIMEE, Prosper : Ibid., pp.261-262

17)César Daly ed. : *Revue Générale de l'Architecture et des Travaux Publics*

18)DALY, César : “De l'architecture polychrome naturelle. Exemples de décorations en lave de monuments siciliens” in *Revue Générale de l'Architecture et des Travaux Publics*, Vol. XV, 1857, p.335

19)HITTORFF, J.-I. : “Réponses aux demandes de M. Garnier” in *Lettres diverses*, ENSBA, Carton 545; 새로운 시대의 건축 창조를 위해서 Garnier가 여러 분야의 건축, 이론가들에게 자문 요청을 한 것 중 Hittorff의 답변편지

20)GARNIER, Charles : *Le nouvel Opéra de Paris*, t. I, Paris, Ducher et C., 1876, pp.12-18

21)QUATREMER DE QUINCY, A. C. : *Encyclopédie méthodique: Architecture*, vol. 3, Paris, 1825, p.85

22)BOIME, Albert : “Originality and the decree of 1863” in *The Academy and french painting in the 19th century*, London, 1986 ; 예술 교육 개혁에 관한 간략한 소개가 서술되어있으며, Viollet-le-Duc의

술 교육 과정, ‘미학과 예술 역사’ (Esthétique et histoire de l’art)은 젊은 건축, 화가 지망생들이 활발한 교류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건축가, 화가, 조각가들은 사실상 각각 서로 다른 예술 언어들을 사용한다는 점과 예술 아카데미의 전통적 방식의 교육 체계가 가진 경직성 때문에 예술인들 사이에 새로운 교류의 장을 효과적으로 건설하지는 못했다<sup>23)</sup>. 이 과정에서 건축가와 화가의 상호협조는 19세기 초에 시작된 종교 회화의 재활성화 운동<sup>24)</sup>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두 분야의 관계로부터 종교 회화의 활성화가 확인된 것이며, 종교 회화는 성당 건축의 다색채 장식의 주요한 방법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때로는 건축가 자신이 화가의 역할을 한 경우도 많았는데, 모든 경우에서 건축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는 다색채 장식에 적용되는 색채와 장식의 정도, 그리고 회화의 주제가 성당 건축의 특징을 더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 화가들의 의도를 이끌어가는 것이었다.

### 3. 19세기 프랑스 성당 건축의 다색채 장식과 종교 재활성화 운동

#### 3.1. 19세기 프랑스 성당 건축의 특성과 다색채 장식의 역사적 변화 고찰

19세기 중반, 프랑스 예술 아카데미는 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성당 건축 스타일은 “순진한” 중세의 고딕이 아니라 “순수한” 그리스, 로마 시대의 고전 건축 스타일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점은 당시 예술 아카데미의 책임자였던 라울 로셰트와 고딕 건축의 옹호자를 자처했던 비올레 르 뒤크 사이에 성당 건축 스타일에 대한 논쟁<sup>25)</sup>을 유발시켰고, 결과적으로 19세기 중반 이후 프랑스 전역에 신축된 성당 건축에서 절충 스타일이 생성되게 된 하나의 중요한 원인 제공을 했다. 이 절충 스타일의 성당 건축은 고고학의 열풍이 건축, 예술 학계에 가져온 로마, 그리스, 중세 건축의 재조명과 19세기 초 콩코다에 의한 종교, 정치, 사회상의 변화, 그리고 인구의 폭발적 증가 등으로 대량의 성당 건축 신축이 요구된 시대의 흐름과 병행하여 순식간에 프랑스 전역에 생겨났다<sup>26)</sup>. 대량 생산된 성당 건축은 과거 온갖 종류의 건축 스타일이 건축가들 각자의 주관으로 재해석된 뚜렷한 특징 없는 건축 스타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나, 일부 주요 지방에 세워진 주교대성당 (cathedral)과 파리의 각 구(arrondissement)에 신축된 본당 성당 (Parish church)건축에서 변화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다.

##### (1) 예배의식의 진화와 종교회화의 발전

일반적으로 19세기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의 성당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의 발단은 예배의식의 진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카톨릭교를 비롯한 모든 종교에서 예배의식은 전통적으로

건축 공간 구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구심점이며, 또 그것에 의해서 주요, 내, 외부 공간 분배가 이루어졌다. 19세기의 여러 종교 건축 관련 저서에서 성당 건축은 “예배의식 예술의 극치”<sup>27)</sup>라고 일컬어지기도 했듯이 예배 의식의 중요성은 사실상 시대를 초월하여 성당 건축 평, 단, 입면 형태, 공간 구성의 틀을 이루었다. 콩코다 이후 신자들의 적극적인 예배 참여와 성직자, 신자간의 교류 증진의 강조, 예배 절차의 합리화 등과 같은 예배의식 진화에 상응하는 성당 건축의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특히 신자들의 종교적 체험의 양상은 새롭게 부각되는 권장 사항이었다<sup>28)</sup>. 종교의 내용에 대한 직설적 표현이 잘 드러나는 분야인 종교 회화의 발전은 성당 건축 진화의 당연한 절차였고, 건축의 다색채 장식으로서의 종교 회화의 적극적 적용은 종교적 체험 증진과 성당 건축 진화에 큰 몫을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히토프, 잠페, 러스킨 등이 추구한 건축의 다색채 장식 체계는 이런 변화에 가속을 가져왔다.

##### (2) 프랑스 성당 건축 행정과 다색채 장식

1848년 이후 프랑스 성당 건축은 교구 성당 심의, 관리 위원회(Comité des inspecteurs généraux des édifices diocésains)의 철저한 건축, 기술적 관리에서 종교적 조건외의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충족시켜야 했으며, 성당 신축은 프랑스 카톨릭 교구 지정 건축가들<sup>29)</sup>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sup>30)</sup>. 까다로운 성당 건축 규정은 건축의 독창적 발전에 득이 되지는 못했지만, 서두에서 언급한 성당 건축 타입에 관한 새로운 이론 정립, 새로운 재료 실험과 종교 기능의 합리화가 함께 생성해내는 다양한 건축 내, 외부 공간으로 갖추어진 성당건축들의 등장 등을 의미했다. 여기서 다색채 장식 체계는 하나의 실험 분야로써 다양하게 실

교육 개혁에서의 역할 및 관점과 전반적인 프랑스 예술 교육 개혁 역사는 다음의 저서들에서 상세하게 연구되어있다. SEGRE, Monique : L’Ecole des Beaux-Arts; XIXe-XXe siècle, Paris, L’Harmattan, 1998, pp.71-143; EPRON, Jean-Pierre : Comprendre l’Eclectisme, Paris, Norma Ed. 1997

23)VIOLLET-LE-DUC, E. E. : “L’Enseignement des beaux-arts. Il y a quelque chose a faire” in Gazette des Beaux-arts, t. XII, 1862, p.394

24)FOUCART, Bruno : Le Renouveau de la peinture religieuse en France(1800-1860), Paris, Arthena, 1987

25)RAOUL-ROCHETTE, Desiré; VIOLLET-LE-DUC, E. E. : “Considérations sur la question de savoir s’il est convenable, au XIXe siècle, de bâtir des églises en style gothique”, Annales archéologiques, t. 4, 1846, pp.325-353

26)LENIAUD, Jean-Michel : Ibid

27)Dom Prosper GUERANGER : Institutions liturgiques, Le Mans, vol. I, 1840-1851, p.386

28)Concordat에 의한 종교, 사회적 변화와 건축과의 관계에 대한 19세기 대표적 연구저서로 MONTALEMBERT, Charles de : De l’état actuel de l’art religieux, Paris, 1837

29)Architectes Diocésains, 대표적으로 Paris의 Sacré-Coeur 성당 건축가인 Paul Abadie를 비롯해서 Victor Baltard, Léon Vaudoyer, Emile Vaudremer 등이 주요 구성원이었다.

30)LOYER, François : Histoire de l’Architecture Française de la Révolution à nos jours, Ed. Mengès, Paris, 1999, pp.153-168

행되었는데, 특히 파리에서 건축의 다색채 장식은 바론 오스망(Baron Haussmann) 재상이 직접 지적인 건축의 필요 요소로서 그 역할을 했기에 성당의 기능을 존중하는 하에서 다색채 장식에 의한 성당 건축 변화의 파급효과는 당연히 큰 것이었다<sup>31)</sup>.

### 3.2. 19세기 프랑스 성당 건축의 다색채 장식과 종교 회화 재활성화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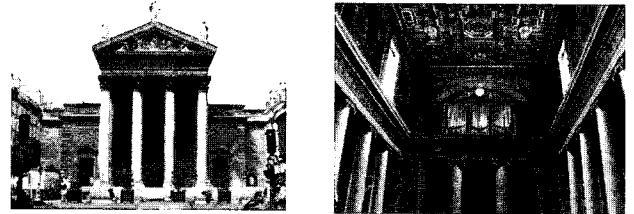
#### (1) 신고전주의 성당과 종교 회화의 역할

프랑스 제2제정 전까지 대부분의 성당은 신고전주의 양식 건축이었다. 단색채의 다양한 톤은 건물의 내, 외부의 윤곽을 나타냈고, 종교 건축을 상징하는 이상적인 색채가 존재한다면 기쁨과 순수를 표현하는 흰색이어야 했다. 예수의 상징인 예배 제단을 덮는 천의 색깔도 흰색이 주를 이루었듯이 주로 흰색 대리석이나 스테코로 건물의 내, 외벽을 마감했는데, 신고전주의 성당 건축의 간결한 형태와 조화를 잘 이루는 단색채 장식의 처리방법이었다. 19세기 성당 개혁을 주도했던 프랑스의 역사학자 샤를르 포브 르네 드 몽탈람베르(Charles Forbes René de Montalembert)는 바로 이 단색채로 처리된 성당 건축에서 새롭게 부각된 것이 종교 회화였으며, 신고전주의 성당의 특징인 장식 없는 단순 누드 실내 벽은 건축가, 화가들에게 무한한 다색채 장식 작업 공간을 제공해준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했다. 즉, 풍부하게 드러난 누드 실내벽면이 곧 종교 회화 재활성화를 본격화시킨 주요 이유가 될 수 있었다고 파악한 것이다<sup>32)</sup>.

종교 회화는 영혼의 이상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영구적 방법으로서 인류 역사에서 항상 존재해온 분야였다. 19세기 콩코다를 기점으로 카톨릭 종교의 재건과 국가의 전적인 원조에 힘입어 종교 회화는 대량으로 제작되어 살롱(Salon, 예술 아카데미의 전시)에 항상 등장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이후 프랑스 제2제정 전까지 종교 회화 재활성화 운동은 그 실효를 거두었고 상대적으로 건축의 수많은 타입 중에서 성당 건축의 신축은 활발해졌으며 종교 회화는 성당 건축의 중요한 다색채 장식이 되었다<sup>33)</sup>. 프랑스 전역에 신축된 신고전주의 성당 건축의 내부 벽면은 주로 종교 회화가 다색채 장식의 역할을 했고, 주요 구조체나 핵심부에는 금도금이나 다양한 색채 적용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종교 회화 수요의 급증과 함께 여러 등급의 화가들이 대거 회화 제작에 참여하면서 종교 회화 그 자체는 독창적이고 새로운 단계에 이르지 못했으며, 건축의 특징을 강조하기보다는 화가 개인의 욕망이 드러난 독립적인 개체로써 건축과 분리되기 시작했다.

1830년대 파리에 세워진 신고전주의 성당 건축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노트르담 드 로레트(Notre-Dame de Lorette) 성당(1823-1836)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건축 내, 외부의 불균형이 쉽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19세기 절충 스타일의 특징인 고전적 어휘를 사용한 단순, 간결한 여러 매스들의 중첩이

만드는 외부의 조형적 형태와 초기 카톨릭교 바실리카식의 열주랑으로 구성된 내부의 화려한 다색채 장식은 서로 특별히 밀접한 관련이 없어 보인다. 즉, 종교 회화, 금도금 기둥 등의 다색채 장식은 건축 형태와 분리되면서 외부의 조형적 형태의 아름다움이 시각적, 기능적으로 극대화될 수 있는 매개체의 역할을 못해내고 있다.



<그림 1> Notre-Dame de Lorette 성당, Paris

같은 시기에 파리에 세워진 세인트마리 데 바띠뇰(Sainte-Marie des Batignolles) 성당(1826-1829), 노트르담 드 본누벨(Notre-Dame de Bonne-Nouvelle) 성당(1823-1830), 생느니 드 생사크르망(Saint-Denys de Saint-Sacrement) 성당(1826-1835) 등과 같은 신고전주의 성당에서도 이 현상은 동일하게 관측되고, 또한 히토프의 다색채 장식 이론이 그 정점을 보이는 생뱅상 드 폴(Saint-Vincent de Paul) 성당(1831-1844)에서 다색채 장식은 건축의 형태로부터 분리되어 건축을 형성하는 구성체계의 독립적 일부로써 작용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인지된다.

#### (2) 절충양식 성당과 다색채 장식의 적용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고딕, 비잔틴 절충 스타일 건축의 등장은 더 다양한 형태, 모드의 누드 실내벽면, 천정 돔의 면, 아치의 구성면 등과 같은 다색채 장식이 가능한 장소가 주어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주로 내부 벽면에 적용되던 종교 회화는 프레스코 기법 외 모자이크 장식과 다색채 유기 재료를 사용한 구축적 다색채 장식이 적용되면서 성당 건축에서 다색채 장식의 새 임무가 주어졌다. 가장 대표적 사례는 마르세이유에 신축된 비잔틴, 고딕 절충 스타일의 두 성당 건축이며, 19세기 성당 건축과 다색채 장식의 새로운 고유성과 의미를 확연히 보여준다. 이 두 성당 건축에서 다색채 장식과 건축 형태의 상관관계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으며, 성당 건축이 가지는 고유의 기능과도 큰 상관이 없다. 또한 여러 다색채 장식 이론가들의 논리에 따른 주요, 부수적 구조체와 건축물 내, 외부의 윤곽선의 강조로써 다색채 장식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다색채 장식 이론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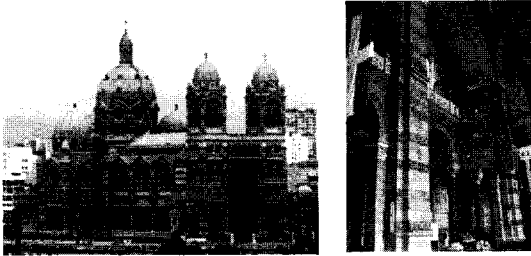
31) HAUSSMANN, Baron-Eugène : Mémoires de Baron Haussmann, 3 vols. V. Havard, Paris, 1890-1893 : 3. Grands travaux de Paris, 1893, pp.490-518

32) MONTALEMBERT, Charles Forbes René de : De l'état actuel de l'art religieux, Paris, 1837, pp.161-164

33) FOUCART, Bruno : Le Renouveau de la peinture religieuse en France(1800-1860), Paris, Arthena, 1987, pp.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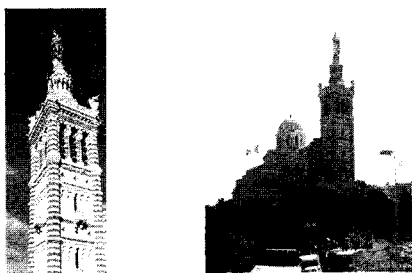
는 또 다른 면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제2제정 때 세워진 레옹 보도와의이(Léon Vaudoyer)의 마르세이유 대성당(Cathédrale Sainte-Marie-Majeure de Marseille) (1852-1874)<sup>34)</sup>은 비잔틴 건축의 상징인 돔(dome)의 재해석이나 전반적인 평면 형태에 대한 의미보다도 다색채 장식의 의미가 더 돋보이는 성당 건축이다.



<그림 2> Cathédrale Sainte-Marie-Majeure, Marseille

대성당 내, 외부에 사용된 스트라이프 형태의 구축적 다색채 장식(constructional polychromy)은 13세기 시에나(Siena) 대성당을 비롯하여 일부 중세시대의 성당 건축<sup>35)</sup>에서 간혹 사용되었던 다색채 장식이었는데, 이것은 그 성당이 지어진 각각 도시의 특징을 상징하는 색채를 파악하고 표현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다색채 장식은 종교적 체험이나 감성을 중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성당 건축 공간과 그 외형 자체의 도시에서의 역할 그리고 지리학적 장소의 의미와 문화의 특성을 강조하고 그것에 더 큰 비중을 두기 시작한 첫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보도와의이에는 지리학적으로 이슬람 문화와 가까운 프랑스 남부 마르세이유의 지역, 문화적 특성을 표현하는 방안으로 이슬람 사원 건축에 널리 사용된 스트라이프 형태의 다색채 장식을 마르세이유 대성당에 적용했다. 또한 이것은 21세기에도 건축, 패션 분야에서 널리 응용되는 이미지로 알려져 있는 ‘해상 양식’(nautical style)으로 성당 건축이 바다에 근접해있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음을 다색채 장식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19세기에 ‘악마’적인 이미지로 인식된 스트라이프 장식을 성당 건축 내, 외장에 사용한 것은 하나의 아이러니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이 성당의 사례로부터 19세기 중반이후 성당 건축과 종교적 체험과의 관계는 성당 건축 디자인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 Notre-Dame de la Garde 성당, Henri Esperandieu, Marseille

마르세이유의 언덕에 세워진 에스페란두(H. Espérandieu)의 노트르담 드 라 가르드(Notre-Dame de la Garde) 성당(1854-1864)은 금도금된 성모상이 종탑을 장식하는 성모의 무염시태(The Immaculate Conception) 성당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르세이유 대성당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스트라이프 형태의 구축적 다색채 장식은 도심 어디에서도 돋보이는 성모마리아 동상을 더욱 더 한눈에 인식 가능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3) 파리의 생장 드 몽마르트르(Saint-Jean de Montmartre) 성당 : 다양한 다색채 장식 체계의 결집

마르세이유의 두 성당에서 색다른 진화의 과정을 보여준 건축의 다색채 장식은 제2제정 때 특히 파리에 집중적으로 많은 성당 건축이 신축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었다. 흔히 제2제정 파리지앵 성당 건축으로 일컬어지는 성당 건축의 형성에서 다색채 장식은 중요한 역할을 하며, 19세기말 새로운 재료, 기술, 그리고 특히 철근 콘크리트의 등장은 다색채 장식에 또한 차례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림 4> Saint-Jean de Montmartre 성당, Anatole de Baudot,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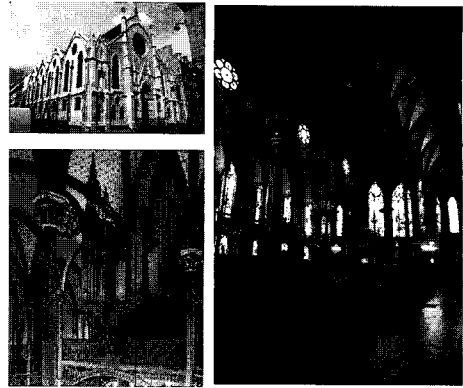
아나톨 드 보도(Anatole de Baudot)가 파리에 세운 생장 드 몽마르트르(Saint-Jean de Montmartre) 성당(1894-1904)은 19세기 전반에 걸쳐 적용된 거의 모든 다색채 장식의 이론 체계가 복합적으로 응용된 대표적 사례이다. 철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주요, 부수적 구조벽면, 내부 벽면, 천장면의 누드 벽면의 존재는 19세기 초 신고전주의 성당 실내에서 인식되던 것과 동일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콘크리트 고유의 어두운 색깔은 다양한 주제의 화려한 회화와 적절히 어우러져서 보는 이에게 신비감을 더해준다. 건축물 외부벽면은 붉은 벽돌과 색타일의 조화로 구성되어있는데, 여기서 유기 재료를 사용한 구축적 다색채 장식은 새로운 재료가 만들어낸 조형적 매스의 범칙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것은 20세기 초 건축물과 다색채 장식의 공간적 함의를 향한 다양한 실험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 것이다.

34)BERGDOLL, Barry : Léon Vaudoyer, historicism in the age of industry, Cambridge, The MIT Press, 1994

35)Italy의 북부항구도시, Portovenere의 해변가 언덕에 세워진 13세기 San Pietro 성당 내, 외부의 stripe다색채 장식 역시 바다를 상징하는 색채로 흰색과 검푸른색 조화를 사용했다.

#### 4. 프랑스 제2제정(1852-1870)때 파리의 본당 성당(parish church) 건축과 다색채 장식

건축 역사, 이론가들은 프랑스 제2제정을 가리켜 또 하나의 르네상스 시대라고 한다. 정치, 경제, 사회의 큰 변화에 힘입어 불과 20여년이란 짧은 기간에 기차역사, 극장, 성당, 학교, 병원, 관공서 등 여러 종류의 건축 타입들이 특히 파리에 집중적으로 대량 신축되었다. 성당 건축은 오스망의 도시정책, 인구의 증가, 종교 재건 그리고 성당 건축 스타일에 대한 두드러진 논쟁<sup>36)</sup>의 여파 등에 의해 건축 스타일과 그 의미의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난 분야였다.



<그림 5> Saint-Eugene 성당, Louis-Auguste Boileau, Paris

대표적인 다색채 장식의 사례이다. 자연색을 지닌 철과 같은 새로운 재료와 기술의 결합이 창조해내는 구조적 다색채 장식(structural polychromy)으로부터 고딕 건축 구조체의 아름다움과 고유성은 한층 더 강조되고 철골구조의 합리성이 쉽게 인식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철골구조체가 건축 구성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그 중요성이 더해졌고, 노트르담 드 라 크와(Notre-Dame de la Croix) 성당(1863-1880)의 침두형 아치 구조에 사용된 검정색체를 띤 철구조체와 같은 주, 부분 구조적 다색채 장식의 사용은 19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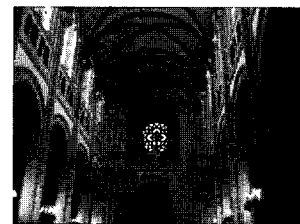
##### 4.1. 제2제정때 파리의 성당 건축의 특성과 다색채 장식론의 실용화

성당 건축의 신축은 파리의 도시경계선 확장에 따라 생겨난 새로운 구(arrondissement)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본당 성당(Parish church) 건축이 필요하게 되면서 더욱 권장되었고, 각구의 중심적 건축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것은 도시를 재정비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우선이었지만, 파리의 옛 변두리 지역에 살았던 많은 가난한 이들에게 종교적 체험의 기회가 제공된 것이기도 했다. 나폴레옹3세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파리에 세워질 첫 본당 성당은 프랑스의 자부심이 우선적으로 표현되듯 네오 고딕 양식으로 결정되었으며, 세인트 클로틸드(Sainte-Clotilde) 성당(1846-1857)의 신축을 시작으로 파리는 비용 절감의 원칙하에 지어진 온갖 절충 스타일 성당 건축의 전시장이 되었다. 이 현상은 신고전주의 건축에서 다색채 장식론으로 사용되었던 종교 회화를 벗어나서 건축가에게 다양한 다색채 장식을 응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파리에 신축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평가와 권고를 했던 오스망은 자신의 의견서<sup>37)</sup>에서 생생상 드 폴 성당의 다색채 장식과 완공 후의 효과에 대한 극찬을 했는데, 지나친 다색채 장식은 원래의 재료가 지닌 고유성을 감출 것이라는 가정과 함께 절제된 다색채 장식의 필요성을 서술하면서 다색채 장식의 의의를 더 굳건히 만들었다. 히토프의 다색채 장식에 대한 열정은 이후 성당 건축 장식에 분명한 영향을 끼쳤음은 당연했고 잠페와 러스킨의 이론이 구체화된 사례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극적인 미학적, 시각적 효과를 선보이는 루이 오귀스트 보वाल로(Louis-Auguste Boileau)의 네오고딕 스타일 생오젠(Saint-Eugène) 성당(1854-1855)에서 다색채 장식은 고딕 건축의 주 구조체와 침두형 아치가 화려한 색채로 마감된 철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구조체를 본질적, 다색채 장식을 부수적인 건축의

요소로 파악하면서 건축 구성은 구조체와 다색채 장식이 결합된 것이라는 잠페와 러스킨의 논리와 다색채 장식이 건축 구조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오웬의 논리가 복합적으로 표현된



<그림 6> Notre-Dame de la Croix 성당의 침두형 아치 철구조체, Paris

##### 4.2. '파리지앵' 성당 건축의 생성

생오젠 성당과 같은 시기에 세워진 마르세이유의 두 성당에 적용된 다색채 장식이 종교적 감성, 체험을 겨냥한 장치보다는 지역, 문화의 특성을 건축에 표현한 것으로써 마르세이유라는 도시를 상징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면, 수도 파리를 상징하는 일명 '파리지앵' 성당 건축의 존재와 다색채 장식과의 관계 여부를 탐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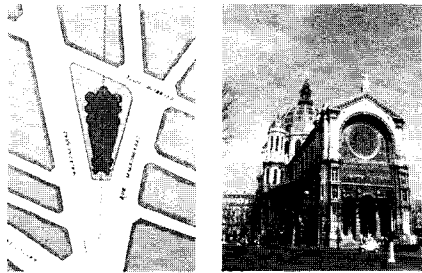
오스망의 도시 정비 사업이 생성해낸 대표적 산물인 '파리지앵의 섬' (*îlot parisien*) 블록은 전면이 도로에 둘러싸인 불규칙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건축 구성에 큰 영향을 끼쳤고, 알려진 대로 오스망식 주거 환경 등 19세기 파리의 새로운 건축 문화를 만들어냈다. 성당 건축의 경우, 정형화된 건축 구

36) RAOUL-ROCHETTE, Desiré; VIOLLET-LE-DUC, E. E. : Ibid

37) HAUSSMANN, Baron-Eugène : Mémoires de Baron Haussmann, 3 vols. V. Havard, Paris, 1890-1893 : 3. Grands travaux de Paris, 1893, pp.490-5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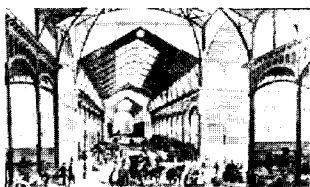


성으로 이루어진 건축 타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볼 때 '파리식의 섬' 블록은 성당 건축 구성에 많은 제한을 둔 것임에 틀림없었다. 특히 파리에 신축되는 성당의 전, 측, 후면 어느 한쪽에 소규모 광장과 녹지를 설치해야한다는 오스망의 권고사항<sup>38)</sup>은 불규칙 형태의 대지에 전통적 방식의 성당 평면 구성을 원활하지 못하게 했으나, 상대적으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형적 형태 창조의 실험이 시도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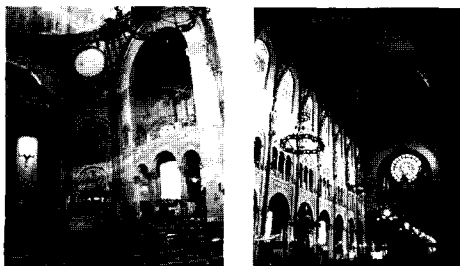


<그림 7> Saint-Augustin 성당 배치도와 전경, Victor Baltard, Paris

불레바드 오스망(Boulevard Haussmann)의 시작점에 위치한 생오귀스탕(Saint-Augustin) 성당 (1860-1871)은 파리의 도시 확장에서 중요한 지리적 입지를 가진 대지에 신축되었고, 19세기 파리의 새로운 상징적 건축 역할의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협소하고 불규칙 형태의 대지에 도시의 새로운 축 설정, 더 많은 사람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히 넓은 공간 확보, 그리고 종교적 감성을 양양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빅토르 발타(Victor Baltard)는 거대한 돔 설치, 철골 구조체의 사용, 그리고 다색채 장식의 사용을 제안했다. 이미 레알(Le Halles) 시장 (1851-1857)에서 철골구조체의 합리성과 기능성을 성공적으로 증명했던 빅토르 발타는 오스망의 권유에 힘입어 생오귀스탕 성당에 금색 도금 철을 모든 주요, 부수적 구조체로 사용함과 동시에 구조적 다색채 장식을 적용했으며, 로마의 산 피에트로 성당의 돔과도 비교될 만한 거대한 돔 설치로 파리의 새로운 도시적 장소를 만들어냈다.



<그림 8> Les Halles 시장의 철골 구조체, Victor Baltard, Paris



<그림 9> Saint-Augustin 성당 실내와 철골구조체, Paris

여기서 다색채가 가미된 철골구조체의 사용은 시대가 요구한 합리적 사고에 따른 새로운 재료의 사용에 큰 의미가 있지만, 실제적인 첫 번째 역할은 주어진 대지의 악조건을 극복하고 또한 이용하여 넓은 실내 장소를 확보하는 점에 있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필연성이 만들어낸 자연스런 구조적 다색채 장식의 적용과 동시에 그것이 필수불가결한 건축의 요소로써 이해가 되었다는 점이다<sup>39)</sup>.

이것은 19세기에 다시 태어난 파리에서 엿볼 수 있는 새로운 건축 문화였으며, 다색채 장식 또한 이 새로운 건축 문화의 자연스럽고 핵심적 일부인 것이다. 생오귀스탕 성당의 구조적 다색채 장식은 오스망의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 끝이어 테오도르 발류(Theodore. Ballu)도 세인트트리니테(Sainte-Trinité) 성당 (1861-1867)에 같은 체계를 적용하면서 파리의 새로운 건축 문화 전파에 이바지했다. 그러나, 드러난 철골구조체를 다색채 벽돌로 감싸버리는 바람에 철의 사용과 다색채 장식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던 오스망으로부터 아쉬움을 사기도 했다<sup>40)</sup>.



<그림 10> Saint-Pierre de Montrouge 성당, Emile Vaudremer, Paris

형태면에서 생오귀스탕 성당이 들어선 대지와 비슷한 모양의 삼각형 대지에 세워진 생피에르 드 몽후즈(Saint-Pierre de Montrouge) 성당(1860-1870)에 사용된 다색채 장식은 또 다른 면을 선보인다. 생오귀스탕 성당에서 다색채 장식이 건축물의 더 넓은 실내 공간 형성의 의미를 강조하는 목적으로 적용되었다면, 생피에르 드 몽후즈 성당에서 다색채 장식은 건축의 조형적 외형의 윤곽선을 강조하는 목적이 주 이유였다<sup>41)</sup>. 즉, 주어진 대지의 상황은 정형적인 성당 건축의 평면 형성을 사실상

38)HAUSSMANN, Baron-Eugène : Ibid

39)생오귀스탕 성당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저서로는 대표적으로 SEDILLE, Paul : "Victor Baltard, architecte" in Gazette des Beaux-arts, t. 9, mai, 1874, pp.492-495; ARNOULD, Louis : "Victor Baltard, 1805-1874" in Bulletin des Amis de Sceaux, 1936-1937 ; 착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Victor Baltard는 1, 2차 건축보고서에 새로운 재료, 철을 사용하여 성공을 거둔 레알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신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넓고 거대한 신전을 만들고 싶어 했고, 철의 적절한 활용은 새로운 종교적 감성을 창조할 것이라고 확신했음을 수차례 기록했다.

40)HAUSSMANN, Baron-Eugène : Ibid

41)Archive de Paris : V66M32 ; l'Eglise de Saint-Pierre de Montrouge, Direction des travaux de Paris, Travaux d'architecture, Premiere inspection 보고서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건축가는 대지의 조건에 적절하게 다양한 매스들을 결합, 중첩시킨 아름다운 외형의 윤곽선을 새로운 외장 재료, 붉은 색조의 테라코타를 사용하여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이 테라코타 다색채 장식은 단순 장식을 벗어난 낙수 홈통이자 내부 구조 대들보의 끝부분을 숨기고 마감하는 구체적이고 기능적인 도구로써 건축에서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는 주요 건축 요소였다.



<그림 11> Saint-Pierre de Montrouge 성당, terra cotta 장식

생오규스탕 성당과 마찬가지로 생피에르 드 몽후즈 성당에서도

<표 2> 19세기 프랑스 성당건축에 적용된 다색채 장식의 특성분류와 개념

| 항목                        | 성당   | 장식개념   | 장식기법<br>(실내 / 실외)              | 장식 표현내용                    |
|---------------------------|--|--|--------------------------------|----------------------------|
| 19세기초-중반                  | Notre-Dame de Lorette, Paris (1823-1836)               | 단순 건축적 도구                                    | 회화 (실내)                        | 실내 벽면에 종교 회화               |
|                           | Notre-Dame de Bonne-Nouvelle, Paris (1823-1830)        |  |                                |                            |
|                           | Sainte-Marie des Batignolles, Paris (1826-1829)        |  |                                |                            |
|                           | Saint-Denis de Saint-Sacrement, Paris (1826-1835)      |  |                                |                            |
|                           | Saint-Vincent de Paul, Paris (1831-1844)               |  |                                |                            |
| Second Empire (1852-1870) | Cathédrale Sainte-Marie-Majeure, Marseille (1852-1874) | 지리학적 장소, 고유문화의 특성 표현                         | 구조적 다색채 장식 (실내 / 실외)           | 다색채 대리석 사용                 |
|                           | Notre-Dame de la Garde, Marseille (1854-1864)          |  |                                |                            |
|                           | Sainte-Trinité, Paris (1861-1867)                      | 이성적 사고에 의한 새로운 재료 사용                         | 구조적 다색채 장식 (실내)                | 철+색채벽돌로 감싸기                |
|                           | Saint-Eugène, Paris (1854-1855)                        | 이성적 사고에 의한 새로운 재료 사용                         | 구조적 다색채 장식 (실내)                | 철+색채입히기                    |
|                           | Notre-Dame de la Croix, Paris (1863-1880)              |  |                                |                            |
|                           |  | Saint-Pierre de Montrouge, Paris (1860-1870) | 새로운 건축, 도시 문화 형성에 따른 필연적 건축 요소 | 구조적 다색채 장식 (실외)            |
|                           | Saint-Augustin, Paris (1860-1871)                      | 새로운 건축, 도시 문화 형성에 따른 필연적 건축 요소               | 구조적 다색채 장식 (실내)                | 철+금도금                      |
| Second Empire 이후          | Saint-Jean de Montmartre, Paris (1894-1904)            | 단순 건축적 도구                                    | 회화 (실내)                        | 실내 벽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면에 종교 회화 |
|                           |  | 이성적 사고에 의한 새로운 재료 사용                         | 구조적 다색채 장식 (실외)                | 붉은 벽돌, 색채터일                |
|                           |  |  | 구조적 다색채 장식 (실내)                | 철근콘크리트                     |

다색채 장식은 건축물에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하고 구조체와 다색채 장식의 결합체가 곧 건축물의 구성이라는 19세기의 다색채 이론을 증명한 것이다. 즉, 노출된 건축의 부분에 구체적 목적에 부합되는 다색채 장식이 적용되었고 자립적인 정체성을 가진 상징적 언어가 된 것이다. 이 두 성당은 파리라는 특별한 도시, 장소와 시대의 상황에 적절한 다색채 장식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대표적 ‘파리지앵’ 성당 건축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 4. 결론

19세기의 다원된 건축 사조의 출현은 그 시대만의 성당 건축 스타일의 부재를 가져왔는데 그 와중에서 새로운 다색채 장식관의 이론 체계정립과 산업화에 따른 새로운 건축 기술과 재료의 개발, 등을 바탕으로 성당 건축은 내, 외형적인 진화의 가능성을 찾았다. 콩코다를 기점으로 종교적 체험의 증진과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성당 건축에 사용된 다색채 장식은 19세기 중반이후 급격한 사회적 변화, 새로운 건축 재료의 등장, 건축 공간과 장소의 특성과 결부된 의미를 표현하는 것에 큰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

프랑스 성당 건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되는 다색채 장식은 히토프, 잠페, 러스킨 등의 열정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시대의 흐름에 순응한 결과이다. 그들의 이론이 19세기 프랑스의 성당 건축 구성에서 어떻게 적용, 응용이 되었는지 그것을 크게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신고전주의 성당 건축에서 건축 형태와 다색채 장식은 별개의 것으로 종교적 체험을 양양시키기 위한 한 가지 도구로써 다색채 장식이 사용된 것과 지리학적 장소와 문화의 다름 등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구축적 다색채 장식이 적용된 성당, 그리고 합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철 등의 새로운 재료를 사용한 주 구조체와 장식의 사이에서 절충적 역할을 하는 구조적 다색채 장식, 마지막으로 위의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고 필연적 건축 요소로써 새로운 건축, 도시 문화에 따라 생성된 건축의 다색채 장식으로 정리될 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19세기 건축의 다색채 장식 이론이 기존의 광학론, 투시화법과는 또 다른 관점으로 해석된 건축 인식론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18세기 중반 이후 프랑스 건축 진화의 대표적인 독창성으로 널리 알려진 “건축 실내의 입면 미학의 형성”과 “장엄한 그림 작품”으로 일컬어지는 수플로와 블레의 종교 건축의 실내 구조형태의 의미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그 현상들이 부여하는 시각적 감동이 가져온 건축 인식론의 변화<sup>42)</sup>는 19세기에 다색채 장식의

42) 대표적으로 ETLIN, Richard: “Grandeur et décadence d’un modèle: l’église Sainte-Geneviève et les changements de valeur esthétique au

구체적인 이론 체계의 등장으로 인하여 새로운 각도로 한 단계 더 발전을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즉, 19세기의 프랑스의 성당 건축에 적용된 다색채 장식은 18세기 프랑스 건축의 독창적인 인식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역사의 선상에 위치한 것이며, 미학적 가치와 건축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본질적 건축의 주요 요소로써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1. 신태양 : 19세기 건축이론에 있어서의 다채장식론, 대한건축학회논문, 15권 2호, 1999-02
2. 조영배·윤도근 : 19세기 새로운 장식관의 형성에 관한 연구-꺾퍼의 피복론을 중심으로,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 No.16, 1998-09
3. BERGDOLL, Barry : Léon Vaudoyer; historicism in the age of industry, Cambridge, The MIT Press, 1994
4. BOIME, Albert : The Academy and french painting in the 19th century, London, 1986
5. FOUCAULT, Bruno : Le Renouveau de la peinture religieuse en France(1800-1860), Paris, Arthema, 1987
6. GARNIER, Charles : Le Nouvel Opéra de Paris, t. I, Paris, Ducher et C., 1876
7. GUERANGER, Dom Prosper : Institutions liturgiques, Le Mans, 1840-1851
8. HAUSSMANN, Baron-Eugene : Memoires de Baron Haussmann, 3 vols. V. Havard, Paris, 1890-1893
9. HITTORFF, Jacques-Ignace : Lettres diverses, ENSBA, Paris
10. LENIAUD, Jean-Michel : Les Cathédrales au XIXe siècle, Paris, Economica, 1993
11. LOYER, François : Histoire de l'Architecture Française de la Révolution à nos jours, Ed. Mengès, Paris, 1999
12. MIDDLETON, Robin ed. : The Beaux-arts and nineteenth-century French architecture, The MIT Press, Cambridge, 1982
13. MONTALEMBERT, Charles Forbes René de : De l'état actuel de l'art religieux, Paris, 1837
14. QUATREMERIE DE QUINCY, A. C. : Encyclopédie méthodique: Architecture, vol. 1, Paris, 1788-1825
15. Revue Générale de l'Architecture et des Travaux Publics, vol. IX, 1851; vol. XV, 1857
16. RUSKIN, John : Les Sept Lampes de l'Architecture, Paris, 1849
17. SEGRE, Monique : L'Ecole des Beaux-Arts; XIXe-XXe siècle, Paris, L'Harmattan, 1998
18. SEMPER, Gottfried : The Four elements of architecture and other writings, Harry Francis Mallgrave, Wolfgang Hermann 번역,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9

<접수 : 2007. 7. 1>

---

XVIIIe siècle" in Soufflot et l'architecture des lumières, 1980, pp.26-37 ; RABREAU, Daniel : "La Basilique Sainte-Geneviève de Soufflot" in Le Panthéon : symbole des révolutions, Paris, 1980, pp.36-96 ; BOULLEE, Etienne-Louis : "Basilique" in Architecture, essai sur l'art, 재편집; J.-M. Perousse de Montclos, Hermann, Paris, 1968, pp.80-97